

반려화: 잃어버린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그린 민화

이운선의 [남도 인문학]

반려화(伴侶畵)

“촉촉한 코를 내 얼굴에 대고/ 푹푹 숨을 쉬며 자는 너를/ 밥상 위로 얼굴을 쏙 내밀고/ 나를 톡 치고 기다리는 너를/ 오늘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너는 어땠니 하듯 마주 보는 너를/ 가슴 시린 밤 뒤적이는 내 등에/ 조그만 등으로 가만히 붙어 자는 너를/ 새파랗게 일렁이는 바다가 무섭다고/ 모래범벅으로 달려와 안기는 너를/ 고소한 과자 같은 발바닥 냄새를/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마의 냄새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자그마한 생 전체를 맡겨두고/ 온몸으로 말을 걸어오는 너” 한견희의 고양이는 ‘서른 살, 개는 세 살’에 나오는 ‘너를 어쩔 줄니’라는 시 전문이다. 나는 2021년 3월 5일 본 지면을 통해 ‘반려견’이라는 글을 썼다. 2021년 3월 12일에는 ‘심견도(尋犬圖)’라는 글을 썼다. 심우도(尋牛圖)에 기대어 반려견에 대한 철학을 얘기했다고나 할까. 또 2021년 8월 27일에는 ‘개목걸이’라는 글을 썼다. 이외에도 몇 차례 반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2021년 기준 천오백만을 넘어섰다. 오늘은 개 그림에 관해서 얘기한다. 물론 조선 후기 개나 고양이 그림의 주제는 지금과 달랐다. 예컨대 고양이 그림은 장수를 그리는 화재(材)로 채택되었다. 개 그림은 벽사(邪)의 의미를 지닌 영수(靈獸, 신령한 동물)라고 해서 즐겨 그렸다. 세눈박이 개를 그리거나 정초에 대문에 개 그림을 그려 붙이는 문배도(門排圖) 풍속이 그것이다. 고양이는 70세를 뜻하는 모와 발음이 비슷하여 장수를 상징한다고 여겼고 벽사의 기능 또한 부가되었다.

반려동물에서 민화 작가 임수영의 반려화(伴侶畵)까지

하지만 지금의 민화 작가들이 그리는 개나 고양이 그림은 벽사나 신령한 동물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다. 임수영 작가가 그린 개 그림이 특히 그렇다. 하고 많은 민화 작가 중에서 내가 임수영을 주목했던 것은, 사진보다 더 리얼한 실사(實寫)라고나 할까. 마치 살아있어서 금방이라도 꼬리치며 안길 듯한 눈망울에 흠뻑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눈망울뿐만 아니라 가느다란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디테일을 자랑한다.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내 눈을 깜박이며 다가오는 듯하다. 수십 개의 그림 속 표정들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도 있다. 뽀롱뽀롱 표정, 궁금해하는 표정, 슬픈 표정 등을 포착할 수 있으니 이를 어찌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아르테위드’에서 열린 ‘영역의 모부(謀部)’라는 기획전시, 임수영의 작가 노트가 절절했다. “5년 전 지금의 강아지 순돌 2를 입양했다. 마음을 온통 기울이다 보니 그림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오래된 가족의 추억들을 불러들이니 시간과 공간 너머 신비로운 세상이 열렸다.



임수영, 프로포즈, 기본채색.

“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면 반려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반려화는 동물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식물과 풍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이 살아서 재봉을 떨며 예컨대 애니메이션 코코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그림이 바로 반려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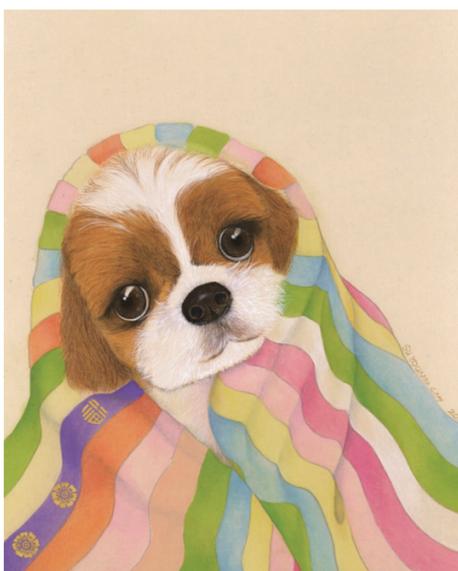
코코의 산 자와 죽은 자처럼, 강아지들과 사람이 종이 위에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그려내는 것이다. 그림 속에서 우르르 뛰어나와 거실을 지나, 정원으로 그리고 산책하던 작은 숲길을 돌아 나온다. 털 한 가닥 한 가닥들이 웅알거리고 킁킁거리고 짹짹 튀고 품에 안기고 뽀뽀하고 코골이를 한다. 꿈으로 들어와서는 웃고 춤추고 말을 한다. 이런 사랑스런 추억들이 그림의 눈망울과 털 위로 새록새록 쌓였다. 가족이라는 마음의 작업이기에 순간순간 놓치고 싶지 않은 추억을 한울 한울에 담고자 했다.” 먼저 떠나보낸 개들을 작품의 테마로 삼은 이유를 밝혔다. 그림을 그리노라면 시간을 잊어버리는 삼매경,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그러면서 멕시코 애니메이션 ‘코코(Coco)’ 얘기를 한다. 멕시코의 유명 축제인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12살 소년 미겔이 고대의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사후 세계는 표면적인 뿐 이승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꿈 이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나는 이런 점들을 포착하여, 임수영의 민화 그림을 ‘반려화(伴侶畵)’라고 이름 지었다. 전래의 동물을 그린 민화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화의 경계를 넘는 그림이다. 기회가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다룬다. 작가 노트의 마지막 문단이 의미심장하다. “라틴어 금언에 이런 말이 있다. ‘모스 야누아 비타이(Mors Janua Vitae)’ 죽음은 삶으로 이어진다고 번역된다. 그리

움을 주고 간 아이들(동물)은 매일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난다. 떠난 아이들과의 사랑은 순돌2의 사랑으로 그려졌다. 이 아이들과의 사랑은 또 다른 시작인 ‘사랑 산책’이라는 테마를 이루었다.” 내력이 어려하니 어찌 반려화라 하지 않겠는가. 이 이름은 미국 거주 소피아김의 문민화(文民畵), 문선영의 ‘괴석풍덩이그림’ 등으로 내가 장르를 명명해가는 일환이기도 하다. 임수영을 비롯한 반려화 작가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임수영, 어느 설날, 견본채색.

반려화(伴侶畵)란 무엇인가

남도인문학팀

함께했던 반려 동물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이다. 이원영의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에 의하면, 개가 길들여져 특수견, 이를테면 사냥견, 구조견, 전투견 등 인간과 함께 한 역사가 만 5천 년 전 혹은 이만 년 전이라고 한다. 발굴 유적이거나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 애완동물(Pet)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동물학자 콘라트 로렌스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장 그르니에는 ‘어느 개의 죽음’에서 이렇

게 말한다. “고대 이집트의 지하 묘지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격리되었다. 그것은 동물들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미하기 위해서였다. 파오기, 황소, 고양이, 개, 각각의 동물들은 종류에 따라 그들만의 구역을 지니고 있었다. 그곳의 동물들은 ‘미라’로서의 위엄을 갖추었다. 인간에게 양립 불가능하지만, 동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의 속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우주에 활기를 주고 이해할 수 없는 단순적인 말로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속성들 말이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책의 제목처럼 어느 개의 죽음이었을까? 문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개의 재생, 개의 부활을 말하고자 한 것 아니었겠나. 지극한 언설의 행간을 보면 그런 힘이 느껴진다. 이집트의 묘지, 박제된 동물들을 보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신의 속성이라 해석하는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삶과 죽음과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이별에 대한 기록들이 주는 영감이 크다. 사실 장 그르니에는 어느 개의 죽음이

라는 제목으로 어느 개의 재생을, 그의 건조한 문장 속에서 되살려냈던 것이다. 펫로스 증후군이란 게 있다. 반려동물을 떠나 보낸 후에 오는 상실감과 우울감 따위를 말한다. 오래전 칼럼에서 스킨십의 사례를 들어 ‘톨로지’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이 맥락을 설명한 바 있다. 자신의 부모 형제가 죽은 것보다 개의 죽음을 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례들에 대한 얘기였다. 고양이라고 다르겠는가. 다른 동물이라고 다르겠는가. 지금 우리는 개와 고양이 그림을 벽사의 상징으로 여기던 민화의 시대에서 반려화를 그리는 시대로 훌쩍 건너와 있다. 임수영의 반려화는 반려동물 인구 천오백만의 시대를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사례다. 그래서 제안한다. 펫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면 반려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반려화는 동물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식물과 풍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이 살아서 재봉을 떨며 예컨대 애니메이션 코코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그림이 바로 반려화다.